

광주시 3조·전남도 8조 돌파 내년 역대급 국비 확보했다

시, 3조2155억원...12.2% 증가
고자기장·공공의료원 설립 등
미래 견인할 핵심현안 대거 반영
도, 8조3914억원...9.4% 늘어
SOC 39개 사업 1조6003억원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국비 2조원을 넘어선 지 불과 3년만에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도 미래 신규사업에 대거 반영되면서, 사상 첫 국비 8조 원 시대를 맞았다.

◇'그린 스마트 펀 시티 광주' 도약 발판 마련=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비는 올해 2조8666억원보다 3489억원(12.2%)이 늘어난 3조2155억원이다. 신규 사업 116건(1676억원), 계속 사업 280건(3조479억원)이다. 광주시는 특히 정부 예산 증가율(8.9%)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2019년 국비 2조원 돌파에 이어 3년 만에 국비 3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의 2018년 이후 연평균 국비 증가율은 13.0%로, 국가 예산 증가율(9.1%)보다 높다.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질적인 면에서도 역대급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현안 사업 예산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물리 분야 3대 핵심 연구시설로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 불리는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10억원), 공공 보건으로 강화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10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규 건립(30억원) 등 이른바 '3대 사업' 용역 예산이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최종중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비(15억원)도 확정됐다.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80억원,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10억원, RE 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18억원, 광주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원,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 5억원 등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문화·관광 사업 분야는 129건(1643억원), 인공지능 도시·풍요로운 경제 기반 구축 사업은 106건(4463억원), 사회 안전망 확충과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74건(1조 8427억원) 등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2750억원)을 포함해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 38건(7193억원), 민주인권 상생 도시와 인권체계 구축 사업 46건(353억원) 등도 반영됐다. 시는 '그린 스마트 펀 시티(Green-Smart-Fun City) 광주' 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성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간부들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직자는 물론 국회 예결위원장, 예

결위원장 등을 수시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여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민선 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미래발전 선도할 신규사업 대거 반영=전남도는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7조6671억원보다 9.4%(7243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 늘고, 주요 신규사업도 2224억원이 반영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기반시설 취약과 미래 성장 동력 미비라는 전남의 고질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6003억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터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4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립남도어목장 설립 타당성 용역비 등 74개 사업에 6219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연구개발사업(R&D) 분야에선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59개 사업 1801억원이 편성됐다. 연구개발 분야 예산에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총 442억원), '백신실증지원 기반사업비' 14억원(총 430억원),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 28억원(총 40억원)도 반영돼 K-글로벌 백신구축 사업에 전남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152억원이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 15억원(총 2914억원)이 신규 반영돼 향후 정정 남해안의 섬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국비예산 확보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곧바로 2023년 국비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다 행복한 전남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역시 젠틀맨,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후보 승리위해 최선”

이재명 3박4일 전북 순회

읍·면까지 훑으며 바닥 민심잡기

정세균과 회동 '원팀 화합'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북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소화하며 호남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지난달 말 4박5일 간 진행된 광주·전남 일정에 이어 일주일 만에 텃밭인 호남을 다시 찾아 '집토끼'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히 전북 일정 중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하고 '원팀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정 전 총리의 지역 지지층 결집 시도로 풀이된다.

◇전북 차별론 부각하며 표심 공략=이 후보는 전북 일정 내내 "전북은 호남 안에서 또 소외받은 지역"이라며 이른바 '호남 내 소외론'을 언급하는 등 전북 차별론으로 지역 민심을 자극하며 '표심 결집'에 주력했다. 그는 지난 4일 전북 군산 공설시장에서 즉석 연설을 통해 "제가 전남-광주를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전북을 들렀더니 '우리가 흑짜리 겁대기'냐고 말하고, 전북을 먼저 가고 전남-광주를 가니 '지나가는 길에 들렀냐'고 하더라"며 "그래서 이번에는 전북의 소외감을 고려해 전북 일정을 따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 후보 측은 이번 2박3일 간의 전북 방문을 역대 대통령 선거운동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인 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이번 일정을 '전북의 미래'를 컨셉으로 한 만큼 전북 식품클러스터 산업 발전 방안과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새만금 개발 문제를 짚어주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총리 회동-전북 지지층 결집 시도=이 후보는 전북 순회 일정 첫날인 지난 3일 자신과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전주 한옥마을 인근 식당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했다. 정 전 총리가 전북 출신인 만큼 정 전 총리를 만났으로써 지역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경쟁자이던 정 전 총리와 덕담을 주고받음으로써 '원팀 화합'의 의미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식당 앞에서 이 후보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평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후보와 민주당이 꼭 승리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승리는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과거에 경험한 대선 등 원팀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말씀이 있으면 아낌없이 드리겠다"며 "이 후보가 오늘을 통해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 전 총리에게 "선대위 출범식 때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눈물이 났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읍·면까지 훑으며 바닥 민심에 구애·尹과 차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 인근 식당 앞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사퇴했던 정 전총리는 이날 이 후보를 만나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화 시도도=이 후보는 전북 일정 내내 읍·면 시장까지 돌면서 바닥 민심을 잡는데 주력했고, 청년·상인·경제인 등을 잇따라 만나며 소통을 강화했다. 정읍 샘고을 시장 등 이 후보의 방문지에는 구름떼 같은 환영 인파들이 몰리면서 이 후보의 전북 매타버스 일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는 시장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 연설 등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그는 5일 전북 정읍 샘고을 시장에서 연설을 통해 "온갖 진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이어 "국민의 정권,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권이여야 한다"며 "권력은 누군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국력을 사용할 것이냐. 과거를 향해서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생을 쟁길 사람 누구인가"라며 거듭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소 경제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 '국민반상회'를 하며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유럽과 미국이 탈탄소 시대로 가며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하면 국가경쟁력을 잃고, 안 내도 될 돈을 미국과 유럽에 갖다 바치는 국부유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어떤 분이 탄소 감축 목표 표 돌리겠다. 기업들 어려움 완화를 위해 덜 줄이고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윤 모 선생이라고"라며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쇠국정책을 펼쳤던(홍선) 대원군이 생각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북 2박3일 간의 일정을 전안과 무중에서 마무리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광주·전남 매타버스 일정 당시에도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영광을 찾은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지난 2주간 이 후보는 전남과 광주, 전북의 읍·면까지 두루 훑으며 그야말로 호남 민심 구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 지지층을 끌어안으며 경선 과정의 내상 치유에 힘쓰는 한편 텃밭 호남 지지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원일 기자 cki@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 계열 | 모집단위 | | 모집인원 | |
|------------|--|-----------|-----------|--|
| | 학 과 | 수 시 | 정 시 | |
| 인문사회 | 신 학 과 | 30 | 15 | |
| |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 2 | 2 | |
| 사범 | 유아교육과 | 31 | 3 | |
| 예능 | 음악학부 | 7 | 3 | |
| |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23 | 6 | |
| 총 계 | | 93 | 29 | |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형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